

(1) 작업 환경

대상기업의 근로자가 조업하는데 가장 고통을 느끼는 조건들중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것은 여성과 생산부 소속 근로자에서 호소율이 많고 고온작업의 경우는 남성과 공무부에서 높다. 이러한 응답자의 반응은 남성과 여성의 생리적 조건과 근로환경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 이들이 제안한 불편조건 개선방안은 첫째, 작업환경을 개선하고(18.1%) 둘째, 안전보호구 착용을 꼭 할것이며(10.6%), 셋째, 휴식시간을 적절히 안배할 것(8.1%)등을 들고 있다.

(2) 안전보호구

조업의 성질로 보아 보호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응답자는 전체의 60% 이상이었으나 이중 실제의 착용정도는 낮았다. 응답자들이 이렇게 비합리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1/3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구의 성능을 믿을 수 없는데서 연유한 경우는 적고 주로 장착법이 불편한데에 원인이 있다. 근로자들이 보호구를 전원 착용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장착법이 불편하지 않는 보호구의 개발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겠다.

일부 산업장의 의무실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조사

순천향간전 논문집 제5집, 1979

안 채 순

본 연구는 1978년 1월 1일부터 1978년 12월 31일까지의 의무실 이용일수 364일 동안에 전북 소재 모방직기업의 산업요원 1,212명을 대상으로 하여 의무실 이용률, 사고나 증상의 발생빈도, 처치, 투약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의무실에서 처치된 증에는 9,912예로서 일인 평균 8.18회와 일일 평균 27.23명의 이용률을 나타냈다.

1) 성별 의무실 이용률을 보면 남성(87.01%, 여성 12.99%)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다.

2) 부서별 의무실 이용률은 사무부(19.50%), 생산부(80.50%)로 사무부보다 생산부가 높았다.

3) 요일별 의무실 이용률은 수요일(15.97%)에 가장 많았고 일요일(9.61%)에 가장 적었다. 사무부, 생산부 모두 일요일이 다른 요일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다른 요일에서는 두드러진 차이는 없었다.

4) 월별 의무실 이용률에서는 7월(9.39%)에 가장 많았고 12월(6.06%)에 가장 적

었다.

5) 계절별 의무실 이용률은 여름(27.75%)에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가을(26.30%), 봄(25.51%), 겨울(20.44%)의 순위였다.

2. 의무실 이용자들의 증상 분포를 보면 외상(40.69%)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소화 불량(23.00%), 감기(13.08%), 두통(7.45%)의 순위였다.

3. 외상(화상, 골절 포함)의 종류별 분포를 보면 화상(84.75%)이 수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열상(5.28%), 타박상(4.71%), 절상(3.82%), 찰과상(1.39%), 골절(0.05%)의 순위였으며 사무부 생산부 모두 화상(사무부-11.50%, 생산부-73.25%)이 가장 높았다.

4. 화상의 부위별 분포를 보면 상지(57.23%)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하지(33.15%) 안면 두부(6.84%)이며, 몸체(2.78%)가 가장 낮았다.

5. 의무실에서 행해지는 처치상황을 보면 투약(59.33%)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외적인 처치(40.14%), 병원에 입원(0.27%), 통원(0.26%)의 순위였다.

6. 의무실에서 투여되는 약물은 진통제(analgesics -39.96%)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소화제(digestives -39.19%), 제산제(antiacids -7.81%) 지사제(obstipatia -6.75%), 항생제(antibiotics -5.58%), 항히스타민제(antihistamines -0.71%)의 순위였다. 부서별로 볼 때 사무부는 소화제(42.55%), 생산부에서는 진통제(41.33%)가 가장 많이 투여되었다.

이상의 결론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제언한다.

1) 세분화된 과별로 의무실 이용률을 조사해보며 전년도와 비교할 것을 제언한다.

2) 다른 의무실과 비교해 보며 건강관리자와 보건관리 요원이 있는 의무실과 보건관리요원만이 있는 의무실을 비교 연구하여 산업보건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일부 산업보건간호원의 사기에 관한 연구

중앙의대 잡지, 제4권 제1호, 1979.

정 연 강

1979년 3월에서 4월까지 전국에서 무의 차출된 피교육 산업보건간호업무에 종사하는 30명(간호원자격소지자 10명, 인문고졸업 15명, 일반대학졸업자 5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한 산업보건간호원의 사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조사내용별로 볼 때 직무부담량(56.7%), 보수면(66.7%), 여가면(56.7%), 창의적능력발휘도(60%), 건강유지(66.7%), 사회적 지위(56.7%)는 긍정적 반응을